



“나도 1000K 봤지”

### KBO 리그 통산 25번째 1000탈삼진 대기록 위업

# 윤석민 “100승 100세이브 목표”

#### 한화전 3이닝 완벽 투구

#### 시즌 첫 20세이브 달성

#### 팀 '파죽지세' 5연승 달려

KIA 윤석민의 야구 인생에 잊을 수 없을 날이 하루 더해졌다. 3이닝 20세이브, 팀의 5연승 그리고 1000탈삼진. 마무리 윤석민은 1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일찍 마운드에 올랐다. 4시전 30분의 혈투가 벌어진 이날 김기태 감독은 윤석민을 7회 조기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9-7에서 등판한 윤석민은 정근우와 김태균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첫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그리고 8회 선두타자 이성열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1000번째 탈삼진을 기록했다.

KBO리그 25번째 기록이다. 8회도 삼자범퇴였지만 세 번째 이닝은 쉽지 않았다. 9회 2사 1루에서 정근우와 김태균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9-8이 됐다. 김경언을 고의 사구로 내보내면서 2사 만루, 윤석민은 좌익수 플라리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면서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승리가 확정된 뒤 두 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숨을 고를 정도로 험겨웠던 경기였지만 얻은 것은 많다. 20번째 세이브로 팀의 극적인 5연승을 만들었고, 1000탈삼진 기록도 작성했다. 사령탑의 가슴 뭉클한 인사까지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김기태 감독은 윤석민 앞에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민은 “날도 덥고 힘들었던 경기였다. 감독님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모자까지 벗고 고개를 숙이셔서 깜짝 놀랐다. 내 역할을 해내서 기쁘고,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25번째로 1000탈삼진을 채운 선수 가 됐다. 어렸을 때는 욕심을 많이 냈던 기록이지만 이제는 맞춰 잡는 승부에 집중하고 있다. 어찌 됐든 1000개를 채웠다. 모든 기록이 의미 있다. 1000개나 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탈삼진은 없다”고 웃었다. 2005년 49개로 시작해서 투수 4관왕에 올랐던 2011년에는 178개의 탈삼진을 뽑으며 개인 한 시즌 최다 기록도 세웠다. 더 빨리 완성될 수 있었던 기록이기도 하다. 팀 상황 탓에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지냈던 시간이 많았다. 올 시즌에도 완벽하지 못했던 몸 상태와 준비, 팀 상황으로 마무리가 그의 자리가 됐다. 윤석민은 “앞으로 100승 100세이브를 채우고 싶다. 보직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기도 하는데 승과 세이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발이든 마무리이든 감독님, 팀한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날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는 거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고맙다”며 “한국에서의 올 시즌은 계획에 없었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최근에는 구위가 올라왔다. 13-14시전 불이 느리고 슬라이더 스피드도 잘 나오지 않았다. 7월이 넘으면서 기온도 오르고 어깨 상태도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특별한 개인 목표는 없다.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완수하는 게 올 시즌 바람이다. 윤석민은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믿음을 주고 팀에 기여를 하는 게 올 시즌 목표다. 예전에는 지고 그러면 무거운 분위기가 오래 유지됐는데 감독님께서 많이 격려하고 배려해 주셔서 선수들이 힘들어도 끝까지 해보려 하는 게 있다.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좋은 분위기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강정호, 8호포 '왕'

### 신시내티전 전날 이어 맹활약... 팀은 3대 4로 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8호 홈런을 폭발시켰다. 강정호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그는 0-1로 뒤진 4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신시내티의 선발 레이스 이글레시아스의 5구째 시속 82마일(132km)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측 담을 훌쩍 넘기는 비거리 128m의 솔로포를 터뜨렸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사흘 만의 홈런이다. 시즌 8번째로, 강정호의 타점은 35개로 늘었다. 2루타를 세 방 연속으로 때려낸 전날에 이은 활약으로,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왕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앞서 강정호는 2회초 첫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1-3으로 뒤진 7회초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글레시아스의 2구째 시속 93마일(150km)짜리 싱커를 공략했지만 투수 앞 땅볼로 돌아섰다. 강정호는 2-4로 뒤진 9회초 선두타자

로 이날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다. 신시내티의 마무리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아돌디스 채프먼(27)이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강정호가 '불어보고 싶은 투수'로 지목했던 선수로, 5월 7일 맞붙었을 때는 시속 100마일(약 161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2루타를 쳐냈다. 채프먼은 이날도 강정호에게 시속 100마일 안팎의 강속구를 뿌렸다. 강정호는 볼 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99마일(159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다. 잘 맞은 타구는 쪽쪽 뻗어나갔지만 펜스 볼과 몇 발자국 앞에서 중견수에 잡혔다. 강정호는 5월 30일 이후 두 달여 만에 3할 타율 재진입을 노렸지만 시즌 타율은 0.299로 유지했다. 강정호는 수비에서도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 방향으로 오는 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 침착하게 송구해 아웃 카운트를 추가했다. 피츠버그는 3-4로 뒤진 9회말 만루까지 지켰지만 추가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 추신수, 통산 600 득점 돌파

### SF전 2루타 2득점... 팀은 연장전서 패배

하루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나선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루타 2득점을 기록하고 개인 통산 600득점을 돌파하는 등 활약했다. 그러나 팀의 역전패를 막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 1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이날 장타와 동점 및 역전 득점까지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듯했으나 팀이 재역전패를 당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이날 2득점으로 추신수의 메이저리그 통산 득점은 601점이 됐다. 시즌 타율은 0.238이다. 추신수는 2-0으로 앞선 2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추신수는 2-3으로 역전당한 4회말 활약의 시동을 걸었다. 4회말 1사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한 추신수는 다음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중전 안타에 3루까지 내달렸고, 보비 윌슨의 좌전 안타에 홈을 밟아 3-3 동점을 만들었다. 6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시즌 19호 2루타를 때리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추신수는 좌완 제레미 아벨트의 시속 약 146km 직구를 잡아당겨 좌익수 왼쪽으로 빠지는 2루타를 쳤다. 추신수는 윌슨의 중전 안타에 또 한 번 홈을 밟아 4-3 역전을 이뤘다. 이후 모어랜드가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다. 7회초 샌프란시스코는 버스터 포지의



솔로포로 1점 따라붙었다. 그러나 텍사스는 모어랜드의 희생플라이로 1점 다시 달아났다. 이어진 1사 1, 3루에서 추신수가 2루수 땅볼로 출루한 사이 3루 주자 애드리안 벨트레가 2루수 실책을 틈 타 홈에 들어오면서 점수는 7-4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8회초 등판한 테너 세프스가 샌프란시스코에 3연속 2루타와 안타 1개를 맞으면서 3점을 잃는 바람에 다시 7-7 동점을 허용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흘렀다. 추신수는 10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진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11회초 샌프란시스코의 헌터 펜스와 벨트레에게 각각 솔로포를 허용, 7-9 역전을 당했다. 이어 마지막 11회말 2사 2루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패했다. /연합뉴스

## ‘골프 황제’ 우즈 중위권 추락

### PGA투어 퀴큰론스내셔널 3R 3오버파 부진 공동 42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큰론스 내셔널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부활의 기미를 보였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다시 난조에 빠졌다. 우즈는 2일 미국 버지니아주 게인즈빌의 로버트 트랜트 존스 골프클럽(파71·738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오버파 74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5언더파 208타를 기록한 우즈는 공동 5위였던 2라운드보다 37개단 하락한 공동 42위에 자리했다. 우즈는 전날까지 중간합계 8언더파 134타로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모처럼 우승 기대를 부풀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0번홀에서 출발한 우즈는 11번홀(파3)에서 티 샷이 페어웨이 오른쪽 황무지로 빠지는 바람에 1벌타를 받고 러프에 공을 떨어뜨려 경기를 재개하는 등

고전했다. 후반 7개를 연속 파를 적어내며 안정감을 되찾았지만 8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이 카트 도로에, 세 번째 샷은 러프에 빠지면서 보기를 추가했다. 메이저 14관왕인 그는 올해 메이저 대회인 US오픈과 브리티시오픈에서 컷 탈락 수모를 당하고, PGA 투어에서도 한 번도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민휘(23)는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적어내고, 중간합계 12언더파 201타로 공동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공동 선두인 트로이 메릿, 케빈 재필(이상 미국)과는 2타 차이다.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는 10언더파 203타를 기록, 전날 공동 5위에서 공동 12위로 내려갔다. 최경주(45·SK텔레콤)는 5언더파 208타로 우즈와 공동 4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2022년 겨울올림픽 베이징서 열린다

### 2008년 하계 개최 이어 사상 첫 동·하계 유치 도시

중국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총회를 열고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를 했다. 베이징은 총 85표 중 44표를 얻어 40표에 그친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제치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다. 1표는 기권이었다. 이날 총회에는 IOC위원 100명 중 89명이 참석했고, 임후보국 위원 3명과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제외한 85명이 투표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베이징은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해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됐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동북아시아 3국이 올림픽 3개 대회를 연속해서 유치하게 됐다. 대규모 비용

으로 그동안 유럽과 북미대륙 국가의 점유율이었던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이어 2회 연속 동북아시아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베이징은 유치과정에서 2008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 등 시설을 재활용해 개최비용을 15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기에 눈이 부족한 인공설을 대량 생산해야 하는 지리적인 한계가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베이징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공설이 환경적인 문제는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베이징은 2013년부터 공해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 등도 제기됐지만 개최지 선정 투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연합뉴스